

동물진료비 부가세 반대 시민문화제



지난 6월 2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동물진료비 부가세 반대 시민문화제”가 개최되었으며 동물보호단체와 우리회 등 32개 단체 회원 6,00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연단체대표의 개회선언, 경과보고, 부가세 문제점 브리핑에 이어 32연단체 대표들이 여·야 국회의원 92명과 시민 12만명의 반대서명

이 담긴 청원서를 기재부에 제출하였다. 32개 연단체 회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청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을 담았다.

반려동물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정부는 미용성형에 준하여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매겼습니다. 반려동물은 부자들의 애완동물일 거라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중서민층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존의 반려자이며 아이들의 정서와 가정의 화목에 기여하며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벗입니다.

반려 동물진료비 부가세는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부가세로 기대되는 세수는 연간 70억원인 반면, 유기동물로 인해 소요되는 국민의 세금은 이미 82억원(08년기준)에 달합니다. 부가세 대신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보험 등으로 부담을 덜어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단 4일간 입법예고한 졸속행정입니다.

관련전문가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선진국은 동물보호의 기존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대다수의 선진국을 예로 들어 부가세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부가세를 매기는 선진국들은 세금에 상응하는 반려동물과 반려가족에 대한 보호와 기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진 공연에서는 “윈디시티의 연주와 함께 가수 이한철, 소희, 캐스커가 작사한 동물사랑과 부가세 반대 내용을 담은 노래를 불렀고, 부가세의 부당성과 졸속행정을 알리는 ”붉은 여신들“의 연극



공연이 있었다. 김옥경회장은 인사말에서 부가세 반대 운동을 위해 수고한 관계자들을 격려했고 반대운동을 통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단결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을 계기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들의 사명을 잊지말고 동물복지와 관련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동물권리선언

- ① 모든 동물은 지구를 공유하며 우리는 더불어 산다.
- ② 모든 동물은 생각하고 느낀다.
- ③ 모든 동물은 온정을 느끼며 온정 받을 자격이 있다.
- ④ 교감은 배려로, 단절은 경시로 이어진다.
- 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동물에게 온정적이지 않다.
- ⑥ 온정은 모든 살아 있는 존재와 세상에 도움을 준다.



이어 동물권리선언 낭독, 부가세 반대 행동강령 제창, 청원결과 보고 그리고 식발의식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옥경 회장을 비롯, 손은필·강종일 부가세 반대 TF공동위원장, 김정배 부산지부장, 최동학 대구지부장, 허주형 인천지부장, 손해수 광주지부장, 성기창 울산지부장, 정기우 경남지부장, 안민찬 제주지부장, 전병준 동물병원협회장, 권용준 시흥시

분회장이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이 순간 행사장은 갑자기 숙연해졌다. 한순간 김옥경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대한수의사회 설립 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부가세의 부당성과 거기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1만 5천 수의사들의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고 “우리도 하면 된다”, “우리도 뭉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반대 연대 모임

(사)대한수의사회 및 지부. (사)동물보호시민단체(KARA), 동물자유연대, 불교환경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회,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재)한국동물매개치료협회경기지회, 한국동물병원협회,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사)한국애견협회, (사)한국인명구조협회, (사)한국전견종연맹, (사)한국진돗개중앙회, 환경운동연합